

# 中 젊은이들, 티베트 불교에 주목

## CNN, "유학파 젊은이들 불교에 깊은 관심"

중국의 젊은이들이 불교를 주목하고 있다. CNN은 3월 29일 "미주·유럽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중국인들과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거나 사회 첫 발을 내딛은 젊은 중국인들이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하고, 펑강 양(Fenggang Yang, 퍼듀대학) 교수의 말을 인용, "젊은 중국인들이 왜 불교로 쏠리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도했다.



젊은 중국인들이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중국 안팎에서 일어나고 있다. 사진은 티베트 스님을 모시고 가정법회를 열고 있는 중국인들.

### 중국 안팎서 출·재가자 선택 불교자선단체 청년 회원 5년새 2배↑ "기복불교 벗어나려면 노력 뒤따라야"

중국불교는 1세기 중엽 한나라 때 티베트를 경유해 중국에 전래된 이래 중국의 기나긴 역사와 함께 성장했다. 그러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문화혁명 기간에는 사당될 위기에 몰렸다. 당시 중국 전역에서 수많은 사찰들이 파괴됐고, 스님들은 "미신을 믿는다"는 이유로 처벌됐다. 중국불교가 이런 어두운 역사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1976년에서야 가능했다. 중국 정부는 당시 '자유화 정책'을 펼쳤는데, 중국불교계는 이때부터 한국·일본 등 주변 국가의 불교계와 적극 교류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근래에 유망한 젊은 중국인들이 불교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양 교수는 "퍼듀대학을 비롯한 미국 내 대학에서 중국 유학생들이 불교 동아리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퍼듀대학의 불교 동아리는 티베트 스님을 초청해 강연을 듣고, 명상 캠프를 찾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

이에 대해 CNN은 양 교수의 말을 인용, "젊은 중국인이 선호하는 불교는 선불교보다는 티베트불교"라며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 젊은 중국인 대부분 유수 대학이나 기업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으며, 유망한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이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칭화(Tsinghua)대학의 과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글로벌 기업에 취업한 로버트 자오(Robert Zhao·25)는 현재 출가를 고심하고 있다. 그가 불교에 입문한 것은 5년 전 티베트를 여행하고서였다. "미신"이라고 배웠고 불신했던 불교에 대한 고정관념이 티베트를 여행하는 동안 사라져버린 것이다. "처음에는 무척 혼란스러웠다"는 자오는 "티베트 현지에서 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불교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무엇인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지금은 일상 전체를 버려야 하는 '출가'를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오는 현재 금주·금연·채식 등을 실천하고 있으며, 가족과 '출가'를 의논하기 위해 상항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CNN은 "중국에는 자오처럼 사회를 등지고 출가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명상 캠프를 찾거나 자원봉사로 자비를 실천하는 데 만족하는 젊은 중국인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 4백여 명의 불자들이 베이징 외곽에 있는 롱꾸안(Longquan) 사원에서 마련된 불교자선단체 '렌 아이(Ren Ai)' 재단의 연례 모임에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례 모임에 참석한 즈홍잉(Zhong Ying·32)은 "렌 아이 재단의 회원 중에서 20~35세의 젊은 계층이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지난 5년간 젊은이들의 수가 거의 두 배(약 200여 명)가량 증가했다"고 전했다. 영국 유학 중에 불교로 개종하고 현재 북경 '렌 아이'의 열성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는 쟁 후이어(Geng Huier·26) 역시 "불교는 현재의 삶은 물론 과거에 힘들었던 시절까지도 치유하는 종교이자, 타인과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하는 종교"라며 "이 책을 읽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국 사회 곳곳에서 불교가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 CNN은 "아직까지 중국인들은 풍수, 기복 등과 같은 비불교적인 이유로 친불교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 같다"고 양 교수의 말을 인용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찰을 방문해 법회를 봉행하고 경전을 읽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소림사 호주로 불교문화 사업 확장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와 복합 문화단지 부지계약



중국 소림사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솔헤이븐시와 복합 문화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복합 문화단지 조감도.

중국 소림사(少林寺)의 본산으로 불리는 허난(河南)성 송산(嵩山) 소림사가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중국 광둥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소림사는 최근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솔헤이븐시와 복합문화단지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 소림사는 이번 계약에 416만2000호주 달러(약 36억)를 지불했다. 소림사는 이 부지에 사찰과 호텔, 골프장이 포함된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소림사(少林寺)를 수련할 수 있는 유료 계엄을 출시한 소림사가 이제 해외에서 돈벌이에 치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소림사는 지난 2006년 총 비용 3억 8600만호주달러(약 3330억원)에 이르는 복합문화단지를 꾸민다는 계획을 세우고 뉴사우스웨일즈 정부와 접촉했다. 당초 소림사를 지어 소림사(少林寺)를 널리 알리기로 했으나 이후 계획을 바꿔 주택과 별장, 골프장 등 위락시설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수행에 전념해야 하는 사찰이 본업보다는 돈벌이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 호주 당국이 소림사의 자금 조달 계획 등에 의문을 표시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경영학석사(MBA) 출신으로 소림사를 기업화한 소림사 방장인 스승신(釋永信) 승려도 사업 취소를 검토할 정도였다. 그러나 호주 당국이 여행업 활성화 등을 고려해 전향적 태도를 보이면서 복합문화단지 조성의 길이 열리게 됐다. 이에 대해 중국 내외의 불교신자와 네티즌들은 신성한 참선 도량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쓴 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5세기 창건된 소림사는 원래 참선을 행하는 유서 깊은 선종(禪宗) 사찰로, 중국 선종의 시조인 달마 대사가 6세기 초 9년간 이곳에서 면벽 수행을 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태국 불교계, 정부와 대립각 세워

국가개혁위 "불교계, 개혁해야" VS 태국승가위 "불교계, 신임해야"

태국 불교계가 정부 당국과 각을 세우고 있다. (India Gazette)지는 "태국의 불교학자연합(Association of Scholars for Buddhism)이 지난 2일 성명서를 통해 '국가개혁위원회(National Reform Council)가 태국 승가위원회(Thai Sangha Council)를 신임해줄 것을 요구' 하고 나섰다"며 "이를 위해 오는 7일 방콕 로얄 광장에서 7개 불교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도법회'를 봉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India Gazette)지에 따르면, 태국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은 태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국가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왓 프

라 담마까야' 사찰 횡령 사건을 기점으로 태국 불교계를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India Gazette)지는 "당시 국가개혁위원회는 '태국승가위원회'가 '왓 프라 담마까야' 사찰 주지인 프라 담마차요(Phra Dhammachayo) 스님의 의혹 내용을 모두 무혐의 처리하자 크게 반발했다"며 "현재 국가개혁위원회는 태국승가위원회 위원들과 '왓 프라 담마까야' 사원의 자산을 조사할 뜻을 비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ASB 사티엔 위폰마하(Sathien Wipornmaha) 의장은 "7일 오후 2시 로얄 광장에서 열리는 이번 기도법회에서 불교학자연합은 태국에서 불교의



태국 정부와 불교계의 갈등은 태국 정부를 대변하고 있는 '국가개혁위원회'가 지난 3월 '왓 프라 담마까야' 사찰 횡령 사건을 기점으로 태국 불교계를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폰마하 의장에 따르면, 7일 기도법회에는 태국 불교보호센터(Buddhism Protection Centre of Thailand), 팔리어·불법전공학생회(Pali and Dhamma Graduates Association), 불교공헌자협



미셸 오바마, 일본 불교문화 체험 미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Michelle Obama)는 지난 3월 말 캄보디아·일본 등 유명 사찰들을 찾아 명상, 다도, 불교전통춤 등 불교문화 체험을 즐겼다. 전 세계 빈곤층 소녀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렛 걸스 러(Let Girls Learn)' 운동을 홍보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며 이루어진 사찰순례다. 미셸 오바마는 "불교는 사람들에게 도덕과 지혜를 가르치고 명상을 통해 깨달음에 이르게 해준다"고 말했다. 박아름 수습기자

###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주문은 현물삼!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뎀) 8cm]

기반방석 내부

- 메모리폼
- 폴리우레탄

기반방석의 장점

- 불교인이란 누구나 기iban
- 나만의 힐링세계 기iban
- 아침에 10분 저녁에 10분 기iban
- 생활할때까지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용만자 기iban
- 기iban
- 침선 안정과 편안, 건강한 나와의 만남입니다

www.hyunbulshop.com

## 친환경 삼베타올선물 SET

NEW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헨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끈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사위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2set 이상 주문시 배송비 무료)

헨프오일비누 1개 10,000원